



50~90대 어르신들이 12일 오후 광주시 동구 대인동의 한 콜라텍에서 춤을 추고 있다.

# ‘실버 놀이터’ 콜라텍 문전성시

### 광주 동구 대인동 콜라텍 평일 600명·주말 1000명 몰려 50~90대 “건전한 공간에서 친구 만나고 운동하니 좋아” 식당·카페 갖춘 곳도 있어...무료입장 등 업소 출혈경쟁도

검은색 정장으로 한껏 멋 부린 이정수(99)씨는 12일에도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서 버스를 타고 동구 대인동을 찾았다.

오후 1시께 대인동에는 이씨와 같은 멋쟁이 할아버지와 빨간색 드레스에 예나멜 구두를 신은 할머니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노년들의 발길이 닿은 곳은 ‘콜라텍’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빨강, 파랑, 노랑 빛의 사이키 조명에 트로트, 블루스, 스포츠 댄스 음악 등이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울렸다.

입장료는 1000원. 콜라텍을 찾은 연령대는 5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했다. 노인들이 파트너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고 거울을 보며 혼자 춤을 연습하는 이들도 있었다.

1990년대 말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춤추고 놀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시작된 콜라텍이 노년들의 놀이 장소로 인기가 있다. 여가시간을 보낼 장소가 마땅치 않은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평일에만 수백여명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가 된 것이다.

‘무도장’ 하면 ‘카바레’를 떠올리게 해 불건전한 접촉, 불륜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현장의 콜라텍은 전혀 다른 이미지다. 격식을 갖춘 춤의 무대이기도 했고, 장·노년층이 건전한 만남

을 갖는 사교의 장이기도 했다.

콜라텍에 도착한 이씨는 걸출과 지팡이 등 소지품을 카운터에 맡긴 뒤, 음악이 흐르고 있는 홀에 입장했다.

신나는 지루박 음악이 나오자 이씨는 아픈 무릎도 있고 빠르게 스텝을 밟으며 같이 온 친구 김귀례(여·90)씨를 리드하기 시작했다.

발 디딤 틈이 없을 정도로 콜라텍에는 이씨 이외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땀을 흘리며 흥겹게 춤을 추고 있었다. 주말 입장료는 2000원이지만 광주·전남 지역 노년들의 발길은 주말에 더 몰린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콜라텍 사장 홍기연(61)씨는 “평일에는 600여명, 주말에는 1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찾아온다”며 “대체로 50~80대 어르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었으니,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콜라텍에 몰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00여㎡ 면적(600평)의 콜라텍은 춤만 추는 공간이 아니다. 구획이 나뉘진 식당에서는 1만원에 두명이 먹을 수 있는 동태탕과 찌개류 등도 판다. 한 명당 하루 6000원 정도면 식사를 하고 친구와 춤을 출 수 있다는 점에서 갈 곳 없는 노년들에게는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다.

춤을 추다 출출해지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가와 커피를 마실 공간까지 마련돼 있어 그야말로 어르신들의 놀이동산이나 다름없다.

이날 이씨와 함께 콜라텍을 찾은 김씨는 “원래 이씨와 동네 친구였지만, 이씨를 따라 다니며 더욱 친해졌다”며 “서로 혼자 살면서 의지를 많이 하고 있다. 설이 지나면 또 스트레스를 풀러 이씨와 함께 콜라텍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웃어보였다.

노년들에게 인기가 높아지자 업소간 가격 경쟁 등 출혈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근에 개장한 다른 콜라텍은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이곳으로 발길을 많이 옮기고 있다. 이 콜라텍에도 어르신 수백 명이 춤을 추고 있었다.

이 콜라텍 사장 한정남(42)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에만 1500여명의 사람이 몰렸다”며 “어르신들이 따로 복장을 가져와 춤을 출 정도로 열정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북구 우산동에서 온 이영상(77), 김애순(여·76) 부부는 “함께 스트레스도 풀고 운동도 되니 콜라텍에 자주 다닌다”면서 “예전에는 불륜 등 안 좋은 인식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내 친구들보다 여기서 춤을 춘다”고 했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년들이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덜어 행복한 삶의 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면서 “콜라텍이 소통과 사교모임의 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전남 초등학교 33곳 신입생 ‘0명’

### 지난해 1명이던 5곳 포함...17개교 ‘2년 연속’ 한 명도 없어

전남 33개 초등학교가 2023학년도 신입생을 단 1명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취학 예정인 어린이는 1만4257명으로 분교 14개교와 분교 19개교 등 총 33개교에는 신입생이 배정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신안이 5개교로 가장 많았고 진도·보성 각 4

개교, 해남·여수 각 3개교, 순천·고흥·장흥·무안·영광·완도 각 2개교 목포·구례 각 1개교이다.

지난해 4월 1일 기준 초등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분교 9개교, 분교 31개교 등 총 40개교였으며 분교 4개교와 분교 13개교는 2년연속 초등 신입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신입생 1명인 학교는 분교 12개교, 분교 6개교 등 총 18개교였으며 이 중 분교 2개교, 분교 3개교 등 총 5개교가 올해 신입생 ‘0명’이었다.

곡성 3개면(겸면·오곡면·목사동면)을 비롯해 화순 이서면, 영광 낙월면, 보성 웅치면에는 초등학교 분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교는 현재 신입생 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입학생 없는 학교는 지난해 4개교(중 2개교·고 2개교)에서 늘어난 것으로 예측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

# 광주·전남 ‘단비’ 온다...12~13일 80mm

전례없는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에 이틀동안 최고 80mm의 단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이 불면서 12일부터 내린 비가 13일까지 이어져 광주·전남지역에 20~60mm, 전남 동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30~8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12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13일 늦은 밤에 비가 그쳤다가 14일 오후에 제주도 남쪽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다시 구름대가 형성돼 15일까지 남부지방에 5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서풍의 영향으로 북쪽에서 한기가 내려오지

못해 발생한 따뜻한 날씨도 14일까지 이어지다가 15일부터는 북쪽에서 한기가 다시 남하하면서 추워질 전망이다.

13일부터 14일까지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7~17도 수준이며, 15일 광주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4도 낮 최고기온은 5도, 전남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기온은 4.1도 분포를 보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13일부터 전남 남해안에 초속 8~14m,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화정 아이파크 실종자 수색전 ‘소백’ 은퇴

### 사람 나이로 65세...9년간 수백 건 출동 13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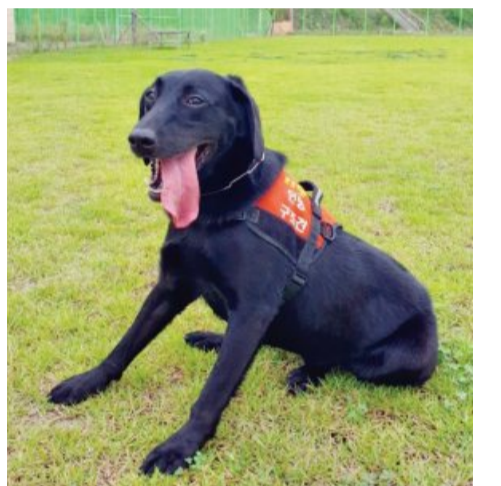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실종자 6명 중 4명을 찾아내며 맹활약했던 119구조견 ‘소백’(사진)이 은퇴한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13일 대구시 달성군 중앙119구조본부 대강당에서 영남119특수구조대 119구조견 소백의 은퇴식을 연다고 밝혔다.

소백은 2013년생 수컷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으로 오는 3월 만 10살이 된다. 2014년 7월 10일 119구조견으로 활동을 시작해 9년간 총 223건의 재난 현장에 출동해 13명의 생명을 구조했다.

소백은 지난해 1월 11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 투입돼 수색 구조임무를 수행했다. 13일 지하에서 첫 번째 실종자를 발견한 것을 시작으로 총 6명의 실종자 중 4명의 위치를 찾는데 결정적 정보를 제공했다.

소백은 현재 사람으로 치면 65세 이상의 노



령견으로, 지난해 10월 심의회를 통해 은퇴가 결정됐다. 은퇴 이후에는 일반인에게 무상 분양돼 반려견으로 제2의 전생을 보낼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전남 경찰 설 명절 특별 치안활동

### 24일까지 범죄예방·교통관리 등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광주·전남 경찰이 특별치안활동 계획을 내놨다.

광주·전남 경찰청과 광주·전남 자치경찰위원회는 “24일까지 평온한 설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범죄 예방활동과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현금취급업소인 범죄취약시설(금융기관과 금은방,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진단·관리를 진행하고, 원룸 및 다세대 밀집 지역·무인점포·전통시장·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범죄예방에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기존 CCTV를 이용하는 한편 전남에서는 주민요청·범죄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이동형 CCTV 120대를 설치해 범죄예방과 주민 불안감 해소에 나선다.

명절마다 신고가 증가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제발 우려 가정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은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에서는 기간별로 집중 관리 구역을 나눠서 운영한다.

19일까지는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혼잡 예상 지역을 소통위주로 관리를 하고 20~24일까지는 귀성·귀경길 정체요인 해소에 힘쓰는 것이다.

전남에서는 고속도로 입구, 식당가 등 취약 지점에서 주야간 상시 음주단속을 전개하고 전광판과 교통방송 등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펼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지역민이 체감하는 치안 활동을 펼치겠다”면서 “평온하고 안전한 설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